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2.10.4.(화) 조간 2022.10.3.(월) 11:00	배포 일시 2022. 9. 30.(금) 오후		
담당 부서 대변인 홍보담당관	책임자 과 장 남우진 (044-200-5013)	담당자 서기관 이진우 (044-200-5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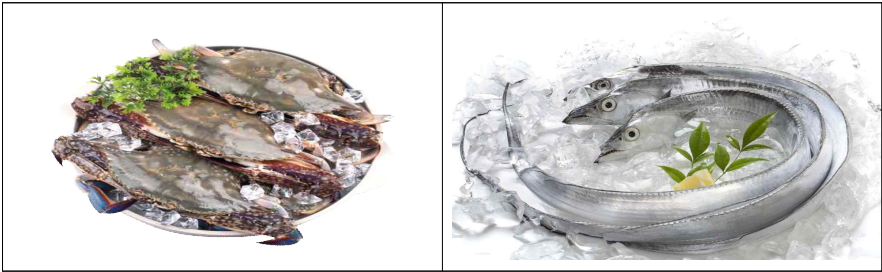
10월의 해양수산 어벤저스를 소개합니다

- 이달의 수산물·어촌여행지·해양생물·등대·해양유물·무인도서 선정 -

□

이달의 ①수산물로 꽃게와 갈치를, ②어촌안심여행지로 충남 서천 선도리 마을과 경기 화성 제부마을을, ③해양생물로 빨강해면맨드라미를, ④등대로 제주도 서귀포시 마라도등대를, ⑤해양유물로 어시장 경매사 용품을, 그리고 ⑥무인도서로 처용암을 각각 선정

① 이달의 수산물 - 꽃게, 갈치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가을의 절정인 10월을 맞아 이달의 수산물로 제철 수산물인 꽃게와 갈치를 선정했다.

꽃게는 가시처럼 뾰족하게 튀어나온 등딱지 부분이 마치 육지에서 바다로 뻗은 ‘꽃’을 닮았다 하여 본래 ‘꽃게’로 불리기도 했다.

제철 꽃게는 부드러우면서 쫄깃하고 달큰한 살맛이 일품이며, 양념 없이 그대로 찜을 해서 담백하게 먹거나 된장과 고춧가루, 파, 무 등을 넣고 끓인 시원한 꽃게탕은 가을 별미이다. 또한, 칼슘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 수산물이다.

은빛 자태를 뽐내는 갈치는 가을 식탁을 풍성하게 하는 대표 수산물이다. 여름철 산란을 마치고, 월동에 대비해 늦가을까지 왕성한 먹이 활동을 하여 10월 전후로 기름이 올라 맛이 가장 좋다. 또한, 비린내가 나지 않고 담백하여 조림이나 찌개, 구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맛볼 수 있으며, 오메가-3 지방산과 칼슘이 풍부하다.

구도형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제철을 맞아 맛과 영양이 풍부한 꽃게와 갈치로 풍성한 가을 식탁이 되길 바라며 환절기 건강을 챙기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② 이달의 어촌 안심 여행지 - 충남 서천 선도리마을과 경기 화성 제부마을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시원한 가을에 넓게 펼쳐진 갯벌에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충청남도 서천군 선도리마을과 경기도 화성시 제부마을을 10월 ‘이달의 어촌 안심 여행지’로 선정하였다.

먼저, 충청남도 서천군에 위치한 선도리 어촌체험휴양마을은 해송림과 바다가 조화로운 휴양지다. 마을 앞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두 개의 섬인 쌍도를 중심으로 펼쳐진 갯벌에서 바지락, 돌조개, 맛조개를 직접 채취할 수 있다. 바다와 붙어 있는 선도리갯벌글램핑장, 소나무와 함께 바다의 정취를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정자인 동백정이 있어 캠핑객들에게도 인기가 높다.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제부 어촌체험휴양마을은 제부도에 위치한 마을로 수도권에서 멀지 않아 가족 단위의 여행지로 좋다. 갯벌체험을 통해 직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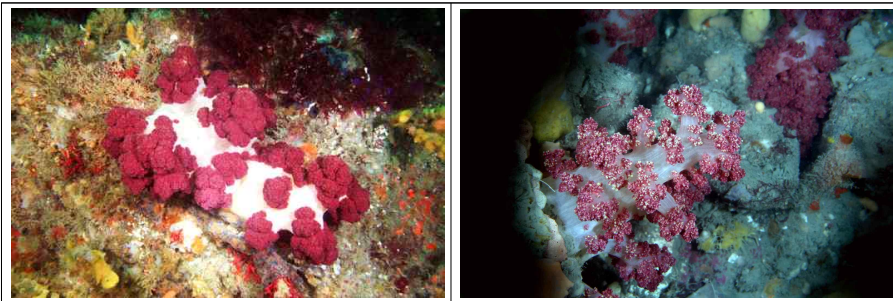
잡은 바지락은 체험마을에서 찢먹거나 집에 가져갈 수 있다. 제부도로 들어가는 길도 색다른 체험거리가 된다. 하루에 두 번 열리는 바닷길*(제부도 모세거리)나 케이블카로 들어갈 수 있는데, 갈라져 있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차량으로 들어서면 빨간 등대가 여행객들을 반겨준다.

* 바닷길 이용 시간은 제부어촌체험휴양마을 누리집(www.제부어촌체험마을.kr)에서 확인 가능

김원중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 “선선한 10월, 여행을 떠나기 좋은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라며, “다양한 생물들이 숨을 쉬는 갯벌을 즐길 수 있는 어촌에서 즐겁게 가을을 맞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달의 어촌 안심 여행지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바다여행 누리집(www.seantou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이달의 해양생물 - 빨강해면맨드라미



해양수산부는 10월, 이달의 해양생물로 우리나라 제주와 남해 연안에서 발견되는 ‘빨강해면맨드라미(*Paraspongodes hirotai*)’를 선정하였다.

자포동물문 산호충강에 속하는 연산호인 빨강해면맨드라미는 수심 약 20~30미터의 암벽에 부착하여 살며, 브로콜리 모양인 부드러운 몸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 다양한 모양과 크기를 보여준다. 몸체를 감싸고 있는 붉은색의 화려한 폴립은 맨드라미꽃을 닮았다.

빨강해면맨드라미는 한 때 남해안과 제주 북쪽 해역에서 살펴볼 수 있었는데, 최근 서식지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인공

증식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해 2000년 인공증식에 성공하였고, 이를 활용한 산호 군락지 복원 및 조성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21년에는 빨랑해면맨드라미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빨강해면맨드라미를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전세계적으로 특정 해역에만 서식하는 빨강해면맨드라미는 보전 가치가 매우 높은 해양생물이다”라며, “빨강해면맨드라미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아름다운 우리나라 수중생태계인 산호 군락지의 훼손을 방지하고, 훼손된 산호 군락지는 복원 과정을 통해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빨강해면맨드라미를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 정보포털 누리집(www.me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이달의 등대 - 제주도 서귀포시 마라도등대



해양수산부는 2022년 10월의 등대로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마라도 등대’를 선정하였다. 이 등대는 매일 밤 10초마다 한 번씩 흰색 불빛을 깜빡이며 동중국해와 제주도 남부해역을 오가는 선박에게 안전한 뱃길을 안내하고 있다.

마라도 등대는 1915년 3월에 처음으로 불을 밝혔는데, 시설이 노후화 되어 2020년부터 종합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다. 2022년 6월 재탄생한 햇불 형상의 마라도 등대는 태평양을 향해 뻗어나가는 우리나라의 기상을 보여준다.

마라도는 서귀포시 모슬포항에서 남쪽으로 약 11km 떨어져 있으며 대한민국의 가장 남쪽에 위치하여 국토 최남단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섬 전체가 평탄한 지형이어서 한 바퀴 도는데 한 시간이면 충분하며 푸른 하늘과 초원 그리고 바다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

또한 각종 TV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된 짜장면이 유명하여 여행객의 발길을 유혹하고 있으며, 주변 해역은 미역, 톳, 소라, 전복, 해삼 등의 해산물이 풍부하고, 낚시인들에게 뱃고기가 잘 잡히는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역사적·조형적 가치가 있는 등대를 소개하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매월 ‘이달의 등대’를 선정해 왔고, 지난 9월에는 전라남도 영광군에 위치한 ‘대신등대’를 선정한 바 있다. 이달의 등대를 방문하거나 여행 후기를 작성한 여행자 중 일부를 연말에 선정하여 예쁜 등대 기념품과 50만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행사 참여방법 등은 국립등대박물관 누리집(lighthouse-museum.or.kr)의 ‘등대와 바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이달의 해양유물 - 어시장 경매사 용품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0월 이달의 해양유물로 1980~1990년대 부산 공동어시장 경매사 용품을 선정하였다.

이 경매사 용품들은 부산공동어시장 이주학 前 사장이 수산물의 유통과정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활용해달라며 2014년 기증한 자료이다. 어시장에서 경매사들과 경매 참가자들이 손가락을 이리저리 바꾸고 돌리면서 가격을 표시하는 경매 모습은 단연 시선을 끄는 풍경이다. 여기에 경매사들의 목소리와 리듬까지 더해지면 경매 현장에 멧과 흥이 더해진다. 어시장이 현대화되면서 전통 경매방식이 점차 전자경매로 바뀌고 있어 경매사들의 우렁찬 목소리를 들을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듯하다.

해양수산부는 사라져 가는 해양유물을 수집하여 전국민에게 알리고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2024년 개관 예정으로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을 건립하고 있다. 과거 바다를 터전으로 삶을 영위했던 이들의 자료들은 모두 우리 해양의 역사를 보여주는 보물이다. 해양수산부는 어시장 노동자들의 생활자료를 비롯해 어민들의 각종 어업도구, 선원들의 항해도구 등 다양한 해양자료를 기증받고 있으며, 지난해 9월부터 매월 1점의 해양유물을 선정하여 소개하고 있다.

이달의 해양유물에 소장유물을 소개하거나,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 기증을 원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유물수집 담당자에게 전화(044-200-5232)나 전자우편(stella0826@korea.kr)으로 문의하면 된다.

⑥ 이달의 무인도서 - 용의 아들이 춤추던 섬, 처용암



해양수산부는 10월의 무인도서로 울산만 남서쪽 외항강이 바다로 흘러드는 길목의 처용 설화가 피어난 작은 바위섬 처용암(處容岩)을 선정하였다.

처용암은 사암과 응회암 같은 퇴적암의 침식을 받아 기둥 모양으로 남은 시스택(seastack)과 기반에서 떨어져 드러난 바윗덩어리 토르(tor) 현상이 보인다. 키 작은 나무와 덩불이 섬을 덮고 있으며, 가마우지나 백로 같은 새들의 습터이자, 오랜 세월 치성을 드리고 소원을 비는 곳이기도 하여 섬에는 반듯하게 다듬은 돌 제단이 남아 있다.

처용암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처용의 설화가 담겨 있다. 신라 제49대 현강왕 당시 동해 용왕의 아들인 처용이 바다에서 올라온 바위라고 한다. 10월에 열리는 울산 시민의 대표 축제인 처용문화제와 함께 처용암을 찾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처용암을 포함한 무인도서 정보는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종합정보제공시스템(<http://uii.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총괄>	대변인 홍보담당관	책임자	과 장	남우진 (044-200-5013)
		담당자	서기관	이진우 (044-200-5017)
<수산물>	수산정책관실 유통정책과	책임자	과 장	구도형 (044-200-5440)
		담당자	서기관	김윤이 (044-200-5447)
<어촌마을>	어촌양식정책관실 어촌어항과	책임자	과 장	김원중 (044-200-5650)
		담당자	사무관	류지호 (044-200-5651)
<해양생물>	해양환경정책관실 해양생태과	책임자	과 장	이재영 (044-200-5310)
		담당자	사무관	최재용 (044-200-5315)
<등대>	해사안전국 항로표지과	책임자	과 장	정준호 (044-200-5870)
		담당자	사무관	조용훈 (044-200-5878)
<해양유물>	해양정책관실 해양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용태 (044-200-5220)
		담당자	사무관	우민아 (044-200-5232)
<무인도서>	국제협력정책관실 해양영토과	책임자	과 장	임채호 (044-200-5350)
		담당자	사무관	장민철 (044-200-5355)

참고 1

수산물 성분 분석 정보

10월
이달의 수산물

꽃게

Blue Crab



꽃게는 작은 몸집에도 불구하고 ‘호랑이와 싸워도 이길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힘이 강하기로 유명하다. 꽃게는 가시처럼 뾰족하게 튀어나온 등딱지 부분이 마치 바다로 돌출된 육지인 ‘꽃’을 닮았다 해 본래 ‘꽃게’라고 불리기도 했다. 꽃게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여 면역 향상에 도움을 주며 칼슘도 풍부하여 성장발육과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다.

출처: 국립수산물연구원

열량	수분	지방	단백질
(Calorie)	(Moisture)	(Fat)	(Protein)
74 kcal	81.4 g	0.8 g	13.7 g

회분	칼슘	인	철
(Ash)	(Calcium)	(Phosphorus)	(Iron)
2.1 g	118 mg	182 mg	3.0 mg

니아신	베타인	아르기닌	타우린
(Niacin)	(Betaine)	(Arginine)	(Taurine)
2.6 mg	590.1 mg	1,743 mg	711 mg

20211001

10월
이달의 수산물

갈치

Hanul



해양수산부

갈치는 은빛 자태를 뽐내고 몸이 훌쩍하고 길며 꼬리 쪽이 마치 칼과 같이 생겼다 하여 '갈치' 라고 불리기도 했다. 갈치는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여 성장기 어린이 발육에 도움을 주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출처: 국립수산물시험원

열량	수분	지방	단백질
(Calorie)	(Moisture)	(Fat)	(Protein)
82 kcal	72.7 g	7.5 g	18.5 g

회분	칼슘	인	철
(Ash)	(Calcium)	(Phosphorus)	(Iron)
1.2 g	46 mg	191 mg	1.0 mg

레티놀	셀레늄	EPA	DHA
(Retinol)	(Selenium)	(Eicosapentaenoic acid)	(Docosahexaenoic acid)
20 ug	52 ug	295 mg	757 mg

2022.10.01

참고 2

이달의 수산물 포스터

10월 이달의 수산물

국민 수산물
꽃게, 갈치
더 알고 싶어?



꽃게

가을의 맛을 풍성하게 담은, 꽃게! 살이 꽉 차고 부드러운 점, 탕 등 다양한 요리 방법으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매력 만점 수산물!

갈치

몸이 긴 칼처럼 생겨 붙여진 이름, 갈치! 살이 부드럽고 단백질 감칠맛이 일품. 구이와 조림 외에도 국과 회로도 즐길 수 있는 다재다능 수산물!



魚食 아식백세 100세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해양수산부

이달의 어촌 안심 여행지

2022년 10월

해송림과 갯벌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선도리어촌체험휴양마을 (충청남도 서천군)

선도리어촌은 바다와 해송림이 조화로운 휴양지이다. 갯벌을 중심으로 갯벌이 펼쳐지는데 바지락, 맛조개 등을 잡을 수 있는 갯벌체험이 가능하다. 마을에서 15분 거리에는 소나무와 강이 어우러져 경관이 아름다운 동백정이 있고, 인근 식당에서 해물칼국수를 먹을 수 있다. 글렘핑장에서 휴식을 취하며 여행을 마무리하는 건 어떨까?

체험 : 갯벌체험, 글렘핑체험
먹거리 : 생선구이, 해물칼국수
주변 관광지 : 동백정, 한산모시관, 비인해수욕장

📍 충청남도 서천군 바닷길 429-3 ☎ 041-952-5122 🌐 <http://선도리어촌체험마을.kr>

빨간 등대와 모세의 기적 현상을 볼 수 있는
제부어촌체험휴양마을 (경기도 화성시)

제부마을은 수도권에서 멀지 않고 바닷길이 열리는 모세의 기적 현상을 볼 수 있어 가족 단위의 여행지로 좋다. 갯벌에서는 바지락캐기 체험을 하며 조개, 게 등을 잡을 수 있다. 마을 앞에는 제비꼬리길이라고 불리는 해안산책로가 있어 가볍게 산책하기 좋다. 빨간 등대와 어우러진 해넘이를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길 수 있다.

체험 : 바지락캐기 체험
먹거리 : 조개찜
주변 관광지 : 제부등대, 해안산책로, 제부도 아트파크, 매바위, 제부항 수산물센터, 제부랜드

📍 경기도 화성시 서산면 해안길 424-12 ☎ 031-357-7828 🌐 <http://제부어촌체험마을.kr>



지켜주세요!!
이달의 해양생물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바다에 핀 꽃다발

빨강해면맨드라미는 자포동물문 산호충강에 속하는 연산호류로 붉은빛의 화려한 풀림이 몸체를 감싸고 있어 외관이 마치 육상의 맨드라미꽃을 연상하게 한다. 식물처럼 보이지만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동물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갑각류인 반구부체게(*Banareia subglobosa*)와 공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서식지가 감소하며 개체수가 크게 줄어 들었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에 빨강해면맨드라미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허가 없이 포획·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분포 및 생태적 특성

수온이 높은 온대 해역의 수심 약 20~30m의 수직 또는 경사진 암벽에 부착하여 서식한다. 브로콜리 모양의 부드러운 몸은 수축과 이완을 통해 다양한 크기를 가지며, 일부 지역에서는 군락을 형성하기도 한다. 아시아에서만 발견되는 생물로 국내에서는 남해안과 제주도의 북쪽 해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Paraspongodes hirotai

우리가 보호해야 할
빨강해면맨드라미

사진출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참고 5 이달의 등대 포스터

10월
이달의 등대




보다 나은 해양수산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이 나야

정경호·세상

대한민국 최남단 지킴이

마라도등대

마라도등대

제주도 모슬포항에서 남쪽으로 약 11km 떨어진 곳에는 대한민국 최남단 마라도가 있다. 마라도는 면적 0.3㎢, 해안선 길이는 4.2km로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고구려와 형태가 비슷하다. 섬 전체가 용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해안선은 불모지인 해식동굴과 기암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형은 평탄하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등쪽 해안 언덕에는 우뚝 선 하얀색의 마라도등대가 있다. 마라도는 우리나라 해양 영토의 기점으로,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선박이 가장 처음 접하는 우리나라 표지가 바로 마라도등대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 남쪽 희망봉의 케이프 포인트 등대에 빗대어 '희망봉'이라 불리기도 한다. 일제 강점기인 1905년 3월 군사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 등대는 노후화된 시설을 최신 설비로 전면 교체하고 등탑을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여 동중국해와 제주도 남부 해상을 지키는 배들의 길잡이가 되고 있다. 마라도등대 앞에는 세계 유형 등대의 모형과 세계 전도를 대리석으로 만들어두어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마라도는 경관이 아름답다. 2000년 천연기념물 제423호로 지정된 마라도는 바다를 오르내려 두고, 반시계 방향으로 관광하는 것을 권한다. 섬을 천천히 한 바퀴 걸어서 돌 때, 약 1시간 정도 소요된다. 자연천이를 타고 관광하는 것도 추천한다. 마라도 전체가 거의 평지이고 완만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섬 관광을 즐길 수 있어,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찾는 매력적인 섬이다.

주변 관광지

- 대한민국 최남단비
- 마라도 기암경사
- 마라도성당
- 선민장자생지
- 마라도관광객센터
- 분재예술원
- 산방산
- 가파도

주변 먹거리·마라도 자랑면

‘자랑면’ 시킨 ‘분’이라는 통신사 광고로 마라도 하면 자연스럽게 ‘자랑면’이 생긴다. 마라도 주변 바다에는 전복과 소라를 비롯해 꽃과 우뚝가시리 등 해초들이 풍부하다. 그래서 마라도의 해녀들은 물집하여 소리와 전복, 꽃, 우뚝가시리 등 해초를 캔다. 약 10년 전부터는 마라도의 자랑면과 함께 아우라지 육지에서 맛볼 수 없는 색다른 맛을 즐길 수 있다.

이달의 등대 이벤트
2022. 1. 1. ~ 12. 31.

1. 블로그 포스팅 이벤트
포스팅하고 여행경비 지원받자!
- 이달의 등대 방문 후기 100명 중, 우수 포스팅을 선정하여 국내 등대 탐방 경비 지원(국민관광객지원금) 각 50만 원 상당, 5명 내외

2. 모바일 등대스텝 투어 2022 시리즈 오존!
스마트폰에 2019~2022 시리즈 '이달의 등대'를 모아보세!
- 50만명까지 스티커를 찍은 참여자와 스티커 투어 12개소 등주자매지 등대 기념품 증정 ※ 2019~2021 시리즈도 참여 가능

※ 참여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등대마다 배너를 확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라도등대 새 단장 기념 이벤트

마라도등대 사진 올리고 기념품 받고~

등대를 포함한 마라도 사진 동영상 등 SNS에 올린 뒤, 등대 방문한 '등대 조각 마을' 현장 증정 (선택식 / 10.15 ~ 소진 시까지)

참고 6 이달의 해양유물 포스터

함께 배워요
이달의 해양유물
10월

어시장 경매사 용품



현대 | 149.5×68.2cm 등 | 국립해양박물관 소장 | 2014년 이주학 기증

10월 이달의 해양유물로 1980~1990년대 부산공동어시장 경매사 용품을 선정하였다.

경매사가 입었던 상의에는 '부산공동어시장', 모자에는 '경매사'라고 자수가 놓여있다. 종은 경매 시작을 알리기 위해 경매사가 흔들어 소리를 내는 도구로 손으로 잡기 쉽도록 손잡이가 긴 형태이다. 그리고 '요구'라 불리는 길고리는 경매 중에 중·도매인들과 관련 상인들에게 상자에 담긴 선어(鮮魚)의 품종과 신선도 등을 효율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이다. 이 경매사 용품들은 부산공동어시장 이주학 前사장이 수산물의 유통과정에 대한 관람객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활용해 달라며 2014년 국립해양박물관에 기증한 자료들이다.

해양수산부는 2024년 개관 예정으로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을 건립 중이며 어시장 상인·경매사, 어민, 선원, 항만노동자 등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온 이들의 삶을 전시에 담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각종 어업도구, 선원들의 항해도구 등 다양한 해양유물을 기증받는다.

해양유물을 소개해 주세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우리 해양 역사의 소중한 이야기와 자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해양유물 이야기를 소개해 주세요.

기증대상
해양사, 해양교류(해운·항인), 해양예술, 해양민속, 해양과학, 해양산업, 각종 어업·항해도구 등 다양한 해양 관련 자료

기증문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044-200-5232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이 나야



해양수산부

보다 나은 해양수산부 **다시 돌아오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별도의 식착
생태적 영향 최소화

별도의
도서

2022년 10월
이달의 무인도서

용의 아들이 춤추던 섬,

처용암

울산광역시
해운대구청

제56회 처용문학제
10월 8일(토)~10일(월)
매주 국가가행한 이득공민단

2022년 10월, 이달의 무인도서로 선정된 처용암은 울산광역시 남구 울현동 668-1에 위치한 무인도서이다. 처용암은 면적 약 622㎡, 길이는 약 30~40m 가량 높은 바위가 3m의 아주 작은 바위섬으로 세척기를 설치할 수 없다. 처용암은 사할과 공학암 같은 화석암의 암석을 받아 기동 모양으로 남은 시스텍(seastack)과 기에서 떨어져 드러난 바닷장어의 토끼(ear) 현상이 보인다. 키 작은 나무와 덩굴이 섬을 덮고 있으며, 가마무지나 벼로 같은 새들의 입터까지 오랜 세월 치성을 지키고 소원을 비는 곳이기도 하다. 섬에는 반쯤하늘에 다름은 등 제단이 남아 있다. 처용암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처용과 개문포 설화가 깃들여 있는데, 아득한 옛날에 유래는 「삼국유사」에 실려 있다. 신라 헌강왕이 개문포에 놀이를 하러 왔던 중, 갑자기 문무가 심해 일을 가졌다. 열군(烈軍)이 동해 물의 주파(主波)를 나타내며 한데 보고하였고, 근처에 용을 쫓아 열군(烈軍)을 세우고 열군(烈軍)이 구름과 연기를 감았다. 그래서 이 지역을 개문포라고 부르게 되었다. 용과 열군에 동해 물이 크게 기뻐하며 바다에서 일곱 열자를 건너, 리고 나타나 춤을 추고 음악을 연주하였다. 그중 한 아들이 처용이 춤을 따라 경주로 갔다. 그는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맞고 금강(金剛)이라는 이름을 얻어 나뉘었다. 당시, 처용이 바다에서 물리온 이 내뿜을 처용암이라 불렀다.

울산광역시 지정 기념물 제56호인 처용암을 포함한 무인도서 정보는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종합정보제공시스템(<http://si.m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www.maf.go.kr blog.naver.com/maemomaf
www.facebook.com/maemomaf www.instagram.com/maemomaf